

울산 앞바다 6-1광구 천연가스田 발견 경제성 확인 2002년부터 본격 생산

한국석유공사는 6월 4일 대륙붕 제6-1광구 고래V구조에 대한 제1·2차 평가시추결과, 경제성을 훨씬 상회하는 천연가스 매장량을 확인했다.

지난 3월 5일부터 천연가스가 발견된 위치로부터 서쪽 1.15Km 지점에서 1차 평가시추를 실시하여 가스발견에 성공하였으며, 이어서 동북쪽 1km지점에서 실시된 2차 평가시추에서도 천연가스 발견에 성공했다.

작년 7월에 실시된 탐사시추와 2차례 평가시추에서 모두 가스발견에 성공함으로써 고래V구조에서 2,500억~3,00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중 1,700억~2,000억 입방피트(LNG환산 340~400만톤/경남지역 15년 소비량)가 생산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정도 규모의 가채 매장량은 현재 LNG 도입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약 7억~8억불 정도에 해당하며 생산시설 건설에 약1

억5천만불~2억불정도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래V구조를 중심으로 반경15Km이내의 지역에는 7~8개의 유망구조가 분포하고 있고, 이들 구조들은 고래V구조와 지질학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약 5,000~7,000억 입방피트의 추가 매장량 확보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고래V구조 가스발견 성공은 6-1광구 가스개발의 시작으로써 이번 발견성공을 계기로 6-1광구 일대의 가스전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금년 9월부터 가스전 개발을 위한 생산시설의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생산플래폼, 파이프라인, 육상인수기지등을 건설하고, 오는 2002년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그리고 6월 중순부터 고래V구조 북쪽 5Km지점에서 시추(최소 400억입방피트 추가확보 기대)를 실시하며, 9월부터는 인근에 분포한 다수의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정밀 물리탐사를 실시하는 등 추가매장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내 대륙붕 고래V구조에서 천연가스발견 성공은 여러

가지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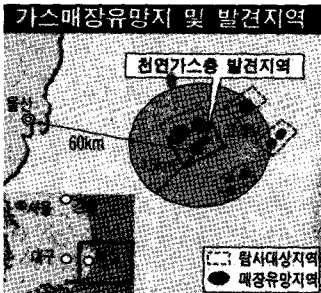
첫째, 우리 땅에서 우리의 기술과 노력으로 가스발견에 성공, 천연가스를 생산하게 된 것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국민의 염원인 산유국진입에 성공함으로써 국민적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가스발견 성공은 국내 대륙붕 탐사활동이 시작된 1970년 이후 30년만의 쾌거이며 시추공수로는 31번째의 성과인 것이다.

둘째, 고래V구조의 가스생산은 6-1광구지역의 가스전 개발의 시발점이다. 이번 가스발견 성공을 기점으로 인근의 유망구조들에 대한 가스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추가 매장량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6-1광구지역은 물론 전체 대륙붕에 대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기술수준이 대내적으로 재차 입증되었다는 사실이다.

넷째, 국내관련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술발전이 기대된다.

다섯째, 수입대체 효과와 에너지자원의 간접 비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가스생산으로 인한 수입대체 효과는 전년도 도입량 기준으로 3.5%에 해당하며 약7~8억불의 외화절약 효과가 예상된다.



한국형 배연탈황설비 국산화 성공

순수 국내 기술 자체 개발로 건설

한전은 국내 최초로 2백MW급 배연 탈황 실증설비의 연구개발에 성공, 영동화력발전소에 설치 완료하고 지난 4월 8일 현장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된 배연탈황설비는 지난 92년부터 환경부 국가선도 개발사업(G-7프로젝트) 환경공학기술개발 과제로 한전 전력연구원 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해 6년여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자체개발에 성공한 순수 국내기술로 건설된 최초의 한국형 배연탈황설비이다.

석탄이나 기름같은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황산화물, 즉 대기중으로 방출될 경우 산성비의 주원인으로 주변환경을 파괴할 수 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전은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90년대 초반부터 배연탈황설비 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해 이 설비를 국산화 하는데 성공했다.

이 사업은 국내 환경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인 한전 전력연구원이 92년 12월 작업에 착수 만6년만에 쾌거를 일구어 냈다.

국내 배연탈황기술은 국내 환경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해외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고 있었던 분야로 이번 사업은 연구개발기간만 36개월, 총 연구개발비 2백70여억원이 투입될 만큼 대형 프로젝트였다.

결과적으로 전력연구원은 기존 선진국에 사용하는 탈황공정은 달리 다공판을 이용한 공정으로 탈황율이 93~95%로 성능면에서 우수하고, 공정이 단순하면서도 흡수탑내 기체·액체의 접촉효율이 탁월해 기존흡수탑의 80%정도로 소형화할 수 있어 발전소 입지가 협소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설비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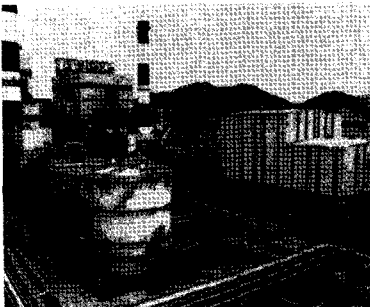
특히, 이 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부산물인 석고는 입자가 크고 순도가 95%이상으로 높아 건축자재용 석고보드의 원료 및 시멘트 첨가제용으로 전량 사용될 수 있어 연간 약 64만톤의 천연석고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지



않아도 돼 약 4백20만달러의 원자재 수입대체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전력연구원 고규군(高圭君)원장은 "이 공정을 2백MW급 이하 후속설비인 영동화력 1호기, 서천화력 1·2호기에 적용해 해외 기술도입으로 인한 기술료 25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향후 국내발전소에 적용기수를 늘려 환경보호와 함께 수입대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수출의 길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국형 배연탈황공정개발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와 국내 환경관련사업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 현안으로 다가온 기후변화협약 협상과 관련 다소 유리한 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협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큰 소득으로 평가되고 있다.



석탄산업의 발자취 문경석탄박물관 개관

석탄산업 현장체험의 산교육장 활용

문경 석탄박물관이 경북최대의 탄전지대인 문경시 가은읍에 지난 5월 20일 개관했다.

이번 전시관 건립은 석탄산업의 역사적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재현해 영구히 보존하고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문경지역의 관광명소와 연계해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자원부 정장섭 자원정책실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김학문 문경시장, 김광식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신영국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와 지역주민이 참석해 석탄광의 폐광으로 소멸돼가는 석탄산업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작업에 동참했다.

문경 석탄박물관은 산업자원부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56억 원을 지원해 석탄산업합리화사

업단이 부지 1만 2천평, 건물연건평 546평규모로 건립한 것으로 외관은

연탄모양으로 꾸며졌으며 내부에는 석탄의 기원, 석탄의 종류, 석탄의 이용, 탄광에서 사용하던 장비 및 화석 등을 전시했다.

야외전시장에는 내부에 전시하기 힘든 대형 압축기, 권양기, 운반장비류 등을 전시해 학생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갱내체험관은 실제 석탄공사의 은성광업소 가행당시 사



용했던 실갱도 230m를 이용해 관람객들이 실지로 볼 수 없는 갱내의 채탄 굴진 등의 작업모습을 관련장비, 인물모형 및 현장 사운드를 통해 실제 그대로 사실감있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문경 박물관은 강원도 태백 및 충남 보령의 석탄박물관에 이어 세 번째로 건립된 것이다.

금년도 해외석유개발사업 지원 확정 용자지원액 6백57억1천만원

산업자원부는 금년도 해외석유개발사업 용자지원액 6백57억1천2백만원에 대한 용자집행 계획 및 용자기준을 고시했다.

용자조건은 탐사사업의 경우 탐사사업비의 60~80%이내(석유공사 1백%이내)이며 이자율은 용자 및 대출 공히 연리 5.5%이며,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의 50%이내(석유공사 1백%이내)이며 이자

율은 용자 연리 4.5%, 대출 5.5%이다. 단 석유공사의 직접사용분은 연리 5.5%가 적용된다.

또한 생산유진 참여사업은 참여사업비의 50%이내(석유공사 1백%이내)로 하고 용자 및 대출금리는 각각 4.5%, 5.5%이다.

이밖에 생산유진 운영사업은 석유공사의 생산유진 운영사업비중 부족액의 100%이내를 대상으로 하고 금리는 용자 4.5%, 대출 5.5%이다.

한편, 지난해의 해외석유개발사업부문 정부지원액은 6백50억원 수준이었다.

'99 GEF운동 마켓세미나 및 ESCO사업 설명회

13개 에너지절약 기자재 공급업체 참여



에너지관리공단은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급업체와 수요업체를 위한 정보교류 및 상담의 장으로 '99 GEF운동 마켓세미나 및 ESCO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4월 28일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3주간에 걸쳐 울산, 구미,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천1백여명에 이르는 산업체·건물 전기담당자 및 지자체,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내 전력소비의 약 80%를 사용하는 조명·모터 부문의 고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절약 기기 공급

에너지기자재 인증 업체와 산업자원부 ESCO등록 업체 등 13개 에너지절약 기자재 공급업체가 참여했다.

제품 전시는 물론, 고효율기기 관련 기술세미나, GEF운동 및 ESCO사업 설명, 마켓 미팅(Market Meeting)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절전시물레이션 CD를 이용한 기술세미나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 기간중 GEF운동본부에서 참가자들에게 무료 제공한 절전시물레이션 CD는 조명기기 및 모터 등 에너지절약 시설 개체에

업체와 대량 수요자 그룹간의 시장정보 교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마켓세미나에는 조명, 모터, 모터절전기, 인버터, 유체커플링 등 고효율

다른 효과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고효율모터, 인버터, 유체커플링, 모터절전기 등 신규 설치나 개체를 원하는 품목에 따라 자신의 사업장 형편에 맞게 가장 최적의 투자와 에너지절약 효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실수요관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절전시물레이션 CD에는 이밖에 참여업체 및 품목안내는 물론 고효율기기 설치 우수사례 및 GEF운동과 ESCO사업 소개, 에너지관리공단 기술정보,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보일러 열정산 프로그램 등을 수록함으로써 에너지절약시설 개체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참가자 5백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가 행사 참가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참가자 대부분이 행사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러 양국 원전, 가스사업 본격화 PNG가스전사업 하반기 타당성조사

한·러 양국간 원자력, 이르쿠츠크 PNG 사업등의 에너지사업에 대한 경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건설 참여와 이르쿠츠크 PNG가스전 개발사업

등에 양국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원자력 건설·운영 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러시아 원전 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대외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실무자간 협상으로 이뤄져온 이르쿠츠크 PNG 가스전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는 본타당성 조사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순도 수소분리기술 국내 최초 개발

약2천5백억 수입대체 효과 기대

현대중공업은 고순도 수소분리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는 농도 70%인 혼합기체 상태의 수소를 고압에서 각종 불순물을 흡착시켜 제거, 99.99% 이상의 고순도로 분리하는 기술이다.

사용된 흡착제는 첨단 'PSA 공법' (압력변동압착공법)을 적용, 다시 저압상태에서 재생해 사용한다.

현대중공업은 3년간 7억여원의 개발비를 들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와 함께 공동연구, 이 기술을 개발했다.

고순도수소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나프타를 촉매 반응시키는 방법으로 순도 70%에 불과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고착이었

다. 이 때문에 고순도 수소를 전량 선진업체들로부터 수입해 사용해 왔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수입해서 쓰는 것에 비해 약 15% 싼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현대측은 말했다. 이에 따라 연간 4백억~5백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약2천5백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현재 현대정유에서 시간당 1백m³의 수소를 분리 생산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고순도 수소가 선진국 수준과 같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한편, 신·중설되는 국내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준비 중에 있으며, 국내시장 개척에 본격 나서는 것은 물론 동남아 중국 남미 등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초 공장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뽑아내 비료나 나일론 등의 원료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회수공정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환경·에너지기술 부문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용 고효율 먼지수거장치 기술개발

생활환경 개선 및 외화획득 기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을 수거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돼 산업체 및 지하상가 등과 같은 생활공간의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대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대기오염저감연구팀의 박영옥·손재익 박사팀은 정부의 G-7사업인 환경공학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인 새론기계공

업(주), (주)한국바이린, 우다산업(주)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원심력집진기와 여과포집진기를 하나로 접목한 산업용 고효율 먼지수거장치를 개발했다.

이 장치는 미세한 먼지도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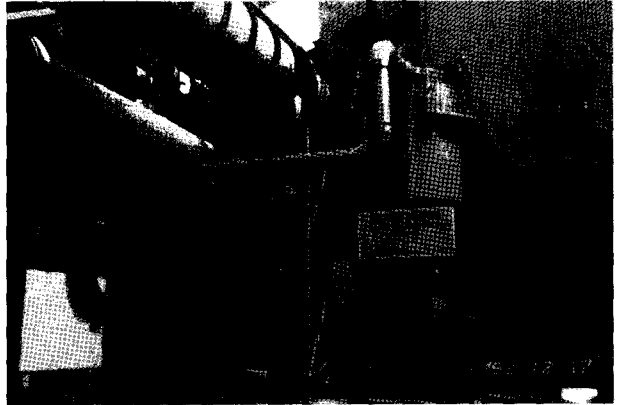
진하는 등 포집효율이 매우 높아 산업체 및 생활환경의 개선은 물론 이 기술을 적용한 장치의 수출 등을 통해 외화획득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시멘트 공장과 제철·제강업, 화력발전소 등 여타 공정의 공해배출 저감등 산업용은 물론 향후 지하상가, 지하철 등 먼지공해로 시달리는 장소에도 적용이 가능해 생활환경의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구팀은 이 기술에 대

해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독일, 중국등에 산업재산권을 이미 출원했으며, 특히 일본의 집

진장치 설치의무화에 따른 수요증가로 대일 무역수지 개선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소형 후막 가스탐지센서 기술개발

가스종류 쉽게 구분 안정성 탁월

기존 가스탐지 센서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 초소형 가스탐지 센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료공학과 박종욱 교수팀은 최근 각종 가스의 종류나 양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후막형 가스센서를 개발했다.

전기신호를 통해 각종 가스를 감지하는 이 센서는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 제품보다 가스 종류를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안정성도 뛰어난 장점을 갖

고 있다.

또 가스탐지에 핵심인 소자의 크기와 면적을 기존제품에 비해 10%이상 줄여 소비전력과 생산원가를 크게 낮췄다.

특히, 새로운 구조의 패키징방법을 개발, 열손실을 최소화했으며 내구성이 강해 가스경보기나 측정기 공기정화기 등 각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며, 감지물질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세라믹 반도체물질 이외에 새로운 물질을 합성해 신호의 안정성과 선택성을 높였다.

박 교수는 “기존 제품이 담배연기와 화재연기 등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등 오작동이 있던 것과 달리 이를 선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스탐지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또 이제품은 필터재료만 바꾸면 알코올이나 담배연기 입냄새 LPG, LNG등 다양한 성분을 감지할 수 있어 음주측정기나 아동용 팬시제품 등에도 널리 쓰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SK, 브랜드파워 1위 기업에 선정

SK(주)의 엔크린과 ZIC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99년 제1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조사(고객설문조사)에서 휘발유부문 및 윤활유부문 1위 브랜드로 각각 선정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조사한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를 나타내는 지표인 K-BPI(Korea-Brand Power Index)란 국내에서 유통되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수를 뜻하는데, Corporate Image Power(성장성, 안정성, 광

고관촉활동, 해외경쟁력, 고객만족 등), 개별상품 브랜드파워(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선호도, 구입가능성 등), Brand Equity(브랜드가 해당 산업군에 점유하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값)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15

세~60세 남녀 5,068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면접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시상식은 3월 31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금년도 1/4분기 에너지소비 11.4% 증가 수입액 43억달러로 20.2% 감소

지난 1/4분기 1차에너지 소비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11.4% 증가한 4,799만5천TOE가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활동 증가와 소비심리회복 등에 기인한 것으로 IMF이전인 지난 97년 동기간의 소비량인 4,700만1천ton보다 약간 늘어난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월 10일 1/4분기 에너지 수급동향을 발표하고 이 기간동안 석유는 115%, 전력은 62%가 각각 늘어났다고 밝혔다.

산업용은 산업활동 증가 등으로 47% 증가했고, 수송용은 승용차이용 증가 등으로 55%, 가정·상업용은 전년동기 소비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상대적 반등 등으로 31.2%가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에너지수입은 수입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고 수입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20.2%로 큰 폭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수입액은 43억달러를 차지, 전년동기보다 11억달러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원별로는 석유가 전체 에너지수입액의 75%를 차지해 33억달러(22.1% 감소)로 나타났고 LNG는 5.2억달러(3% 감소), 유연탄은 4.7억달러(17.6% 감소) 규모가 각각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에너지 수급동향

| 구분 | 97.4/4 | 98.1/4 | 98.2/4 | 98.3/4 | 98.4/4 | 99.1/4 |
|-------|--------|--------|--------|--------|--------|--------|
| 산업생산 | 36 | -62 | -122 | -95 | -16 | 123 |
| 에너지소비 | 66 | -94 | -45 | -74 | -10.1 | 114 |

LG정유, 자원재활용 부문 환경대상 수상

LG정유는 5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환경부와 조선일보가 공동 제정한 제7회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자원재활용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환경부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제정한 환경대상은 자원재활용, 푸른하늘, 맑은 물, 환경과학기술, 환경운동 등 5개 부문별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예비심사와 예선심, 현지실사를 통해 공적을 확인한 다음, 사회 지도급 인사와 환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대상 본선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확정되는 국내 최대의 환경대상이다.

이번 수상은 생산에서 최종소비자까지 전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RFCC 폐촉매 재활용/폐수재활용시설(EDR : Electro Dialysis Reversal)/주유소 재활용품 수거서비스/유포용기재활용 등의 활동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이는 LG정유 전 임직원이 환경보



전과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한 결과이다.

에너지효율제도 인터넷망 계통 에너지절약제품 정보검색 가능

에너지관리공단은 산업자원부고시에 의거 국가 제도로 시행중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절전형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제도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제도 인터넷망(<http://www.kemco.or.kr/efficiency>)」을 구축하고 6월 10일 개통했다.

에너지효율제도 인터넷망에서는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품, 고효율인증제품, 절전형제품 등 22품목 3,000여모델에 대한 Database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브랜드, 모델, 연도등 검색조건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여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검색중인 소비자가 해당제품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삼성전자(주), LG전자(주)등 주요 제조업체 홈페이지와도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측은 앞으로 제조업체의 신청

을 받아 400여 관련 제조업체와 모두 연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인터넷망은 소비자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절전형 사무기기등을 구입시 예상 에너지비용절감액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큰 자랑이다.

즉, 소비자가 에너지절약제품 구입수량에 따라 향후 얼마만큼의 가계비 절감이 가능한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산업자원부고시등 효율제도 관련 법규도 게재되어 제조업체가 에너지절약기준, 측정방법등 에너지효율제도전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측은 에너지효율제도 인터넷망을 산업자원부의 inno-NET(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과도 연결하고 하반기중 영문판도 개통하여 효율제도 관련 국제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